

전시리뷰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 11. 26. ~ 2025. 3. 3.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김태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24년 11월 26일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2년 개최한 《천하제일 비색청자》 전시 이후 12년 만에 선보인 고려청자 기획·특별전이며, 2023년 개최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자연과 사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청자는 뛰어난 제작기술과 아름다운 조형성으로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잘 알려졌으나, 이를 단독으로 조명하는 전시는 이번이 최초라 하니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번 전시는 총 274건의 작품이 출품된 대규모 특별전이며, 출품작 가운데에는 미국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청자인물장

식조형주자>, 미국 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청자쌍사자형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청자나한상> 등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잘 알려졌으나 이번 전시를 통해서야 국내에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도 여럿 포함되어 개막 전부터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시는 <그릇에 형상을 더하여>, <제작에서 향유까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그릇에 형상을 더하여>에서는 삼국시대 가야·신라의 상형토기와 토우가 전시되었다. 일찍이 고대부터 형성된 한국의 상형토기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신화의 시대에 인간과 동물을 비롯하여 주변 사물을 본뜬 상형토기·토우가 사후세계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종교와 사회·문화가 발달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담은 상형 기물의 제작은 점차 줄어들었으나, 상형 제작전통은 고려시대로 이어져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상형으로 장식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에서는 미술사와 고고학의 최신 학술·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고려 상형청자의 제작과 유통, 소비에 관한 전시가 전개되었다. 첫 섹션에서는 고려와 중국요·송의 여러 요장에서 제작된 상형자기를 비교하였다. 고려 상형청자의 본격적 제작이 촉발되는 계기 중 하나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다. 교차로 전시된 한·중의 사자·원앙 장식향로, 연화형 향로, 과형병, 사자형 베개 등의 비교를 통해, 양국가간 상형 소재와 조형적 특징은 공통되면서도 각 나라 고유의 특징과 미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마터와 해저·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상형청자가 전시되었다. 전국에서 출토된 최신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은 명품 상형청자의 조형 세계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이었다. 고려의 고도로 발전된 제작기술과 높은 예술적 취향의 결과로 완성된 것이 상형청자라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높이 솟은 귀룡의 코나 생동감 넘치는 기린의 갈기, 풍부한 볼륨의 오리 몸체나 웃고 있는 원숭이의 얼굴 표현 등 상형청자의 정교하고 섬세하면서도 해학적인 디테일에서 고려청자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인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은 불교와 도교 의례용기와 예배존상이 전시되었다. 청자존상은 금속이나 석제 불상에 비하여 주류는 아니지만 풍부했던 고려시대 청자문화 속에서 제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자리에 전시된 청자존상들은 주로 유적에서 출토되어 작은 파편만 전하고 만듬새나 비율이 좋지 않은 작품들이 대다수였지만, 고려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자 고려인의 얼굴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동적이었다.

그 밖에도 전시실 곳곳에서는 기존 전시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노을빛, 바다빛 조명으로 상형청자를 비추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거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과학적 조사

성과를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전시 말미에는 현대 예술가들의 고려 상형청자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였다. 이는 소품이 주를 이루고 스토리텔링이 어려워 자칫 지루하거나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예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노력이라 생각된다.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풍부한 자료와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 상형청자를 단독으로 조명한 전시로 학술적 성격이 짙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상형청자의 아름다움 너머 청자에 투영된 고려인들의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취향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